

정노풍의 삶과 작품 활동에 관한 小考

김 동 희*

차 례

- | | |
|---------------------------------|--------------------|
| 1. 서론 | 3. 『愛』와 『愛의 勝利』 발간 |
| 2. 노풍(蘆風), 정철(鄭哲), 그리고 정수영(鄭壽榮) | 4. 3편의 미공개 작품 |
| |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노풍(鄭蘆風)의 삶과 작품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노풍은 1920~30년대 활동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다. 이 글에서는 정노풍의 본명이 지금까지 알려진 정철(鄭哲)이 아닌 정수영(鄭壽榮)임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愛』와 『愛의 勝利』의 발간, 『중외일보』에 수록된 3편의 시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그의 작품 활동을 공개하였다. 노풍이자 정철로 작품 활동을 한 정수영은 1920년대 교토제국대학에서 수학한 지식인이었으나 끝내 문단의 중심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일제의 핵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삶을 마감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노풍, 정철, 정수영, 교토제국대학, 『愛』, 『愛의 勝利』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서론

문학사에서 사라진 작가에 대한 연구는 그 시작부터 연구의 목적 및 문학사적 의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공백으로 남은 현재의 상황이 그가 사라지게 된 경위와 이유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축을 두고, 그렇다면 왜 그를 다시 호명해야 하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명의 차원을 넘어 그를 문학사의 어떤 자리에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담감이 사라진 작가를 추적하는 작업을 요원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부담감을 떨칠 정도의 타당하고도 의미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이 자리에 소환하여 그의 삶과 작품 활동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사라진 그의 이름을 그가 활동한 그 시대에 놓아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노풍의 삶과 작품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학의 장에서 정노풍은 주목받지 못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다. 그는 1920년대 민족주의와 계급주의의 논쟁 속에서 ‘계급적 민족주의자’¹⁾로 간헐적으로 거론될 뿐 주된 연구의 대상

1) 정노풍은 『己巳詩壇展望(15)』(『동아일보』 1929.12.22.)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大略 于今까지의 우리 詩壇의 思想的 系流를 살펴건대 民族意識系에 屬하는 詩人으로는 春園, 요한, 巴人, 無涯, 月灘 등이 그러하고, 階級意識系에 屬하는 詩人으로는 林和, 赤駒, 海剛, 昌述 등이 그러하고 階級的 民族意識系로는 蘆鳳이 그러하다. 無涯는 對八峯駁論에서 階級的 民族意識의 色彩를 淸澈하나 아직 分明하지 못하며, 어느 系에 屬할는지 아직 明瞭치 못한 詩人으로는 石松, 黃錫禹 등이 있고 아직도 純粹藝術의 立場에 서 있는 詩人으로는 岸曙, 은상, 素月 등이 그러하다. 己巳詩壇은 이러한 系流가 正히 意識 清算에 向할 動搖를 自覺하는 가운데서 저므려간다.” 그는 민족의식계와 계급의식계에 속하는 시인을 분류하고, 그 스스로 유일하게 자신을 “계급적 민족의식계”에 편입시킨다. 또한 그 이외 어디에 편입시킬지 불분명한 시인들과, 아직도 순수예술의 입장에 있는 시인을 거론

이 되지는 못했다. 또한 시인으로서 그의 행보는 2004년에 이르러 그의 작품을 묶은 책이 발간²⁾되면서 그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급적 민족주의에 소급될 수 있는 작품이 주된 것이다.

정노풍의 생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노풍의 생애에 관한 사항은 박경수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박경수는 “정노풍은 문학사에서 거의 실종되다시피 되었다”며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진단하고, 그의 자취를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그의 생애에 대해 밝히고, 작품을 수합해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등 정노풍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박경수는 정노풍의 글을 통해 그의 생애를 면밀하게 탐색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노풍의 본명은 정철(鄭哲)로, 1903년생으로 평양 또는 평양 근교 출신이며, 1923년에서 1927년까지 교토제대에서 유학하며 사회과학을 전공하였고, 1927년 귀국하여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노풍필화사건’으로 교직을 그만둔 뒤, 본격적으로 비평 및 시 창작을 하였다고 밝히며 공백으로 존재한 그의 생애를 채워나갔다. 다만 그는 정노풍이 “문학활동을 일정 기간에만 한 다음 중단함으로써 문단에서 잊혀지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 그가 북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유족이나 지인 등을 알아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한다. 이와 같은 그의 분류 방식을 통해 그가 기존 문단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그것과는 다른 입지에 자신을 놓아둠으로써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다른 문인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 2) 박경수는 정노풍의 작품을 수합하여 『정노풍 문학의 재인식』(역락, 2004)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그간 발표된 김재홍(『계급적 민족의식의 시, 鄭蘆風』, 『한국문학』 통권185호, 1989.3), 조두섭(『정노풍시 연구』, 『대구어문논총』 제8집, 1990.5), 박경수(『정노풍의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론』, 『한국문학논총』 제11집, 한국문화회, 1990.10)의 연구가 재수록 되어 있다. 3명의 저자는 그들의 논문을 재수록 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하였기에 이 글에서 그들의 연구를 인용할 때에는 첫 지면이 아닌 이 책에 재수록된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조두섭은 재수록 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제목을 『정노풍 : 계급적 민족시의 대중화 실천』으로 변경하였기에 인용 시 해당 제목으로 기재한다.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노풍의 생애와 관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하며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었다.³⁾

이 글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자들이 살핀 내용을 검토하고 그 사이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노풍의 삶과 작품 활동의 일면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노풍의 본명이 현재 알려진 정철이 아닌 정수영(鄭壽榮)임을 밝히고, 그가 발간한 『愛의 勝利』⁴⁾에 수록된 작품 등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작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노풍(蘆風), 정철(鄭哲), 그리고 정수영(鄭壽榮)

박경수는 『문예공론』 제2호(1929.6)에 수록된 「본지집필제가(本誌執筆諸家)」를 통해 정노풍의 본명이 정철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⁵⁾ 노풍과 정철이 동일 인물이라는 박경수의 견해는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조』 2호를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한데, 『학조』 2호의 목차에는 시 「哀唱外一篇」의 저자로 “鄭哲”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품이 수록된 페이지에는 「哀唱」 아래 “蘆風”이 병기되어 있어 노풍과 정철이 동일 인물임을

3) 박경수, 「정노풍의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론」, 위의 책, 529~555쪽 참조.

4) 이 글에서 다루는 『愛의 勝利』는 최남선이 주재한 잡지 『靑年』에 수록된 牧羊生 홍병선의 소설 「愛의 勝利」와는 다른 것이다. 홍병선의 소설 「愛의 勝利」는 1922년 「동정의 탄식」으로 1회(2권 3호)와 2회(2권 4호)가 발표되었고, 3회(2권 5호)부터 「愛의 勝利」로 변경되었다. 동 시대에 「愛의 勝利」라는 동일한 작품명이 등장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1920년대 초 일본문단에서 「愛の勝利」라는 제목의 작품이 다수 확인되며, 그 중 『朝鮮公論』(1922.6)에 이쿠타 키잔(生田葵山)의 소설 「愛の勝利」가 수록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그의 이력을 통해 「愛の勝利」는 마리보(Pierre Carlet de Chamblain de Marivaux)의 「사랑의 승리(Le Triomphe de l'amour)」(1732)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박경수, 앞의 책, 531쪽.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시와 평론 등 문학과 관련된 작품에는 노풍으로, 그 이외의 산문에는 정철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만이 입학할 수 있었던 교토제국대학에서 수학한 인물의 행적이, 더구나 당시 교토유학생 커뮤니티에 속하고 다방면에서 작품 활동을 한 시인의 행적이 이처럼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한 의문은 식민지 시기 제국대학에서 유학한 조선인들의 행적에 관해 검토한 정중현의 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노풍의 본명이 정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정중현은 1897년부터 1945년까지 교토제국대학에서 유학한 조선인 유학생의 명부를 정리해 공개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교토제국대학에서 유학한 인물 중 ‘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⁶⁾

정중현이 정리한 유학생 명부의 인물들을 토대로 박경수가 밝힌 정노풍의 생애에 관한 사항과 일치하는 인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수영(鄭壽榮)’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중현이 공개한 정수영의 정보는 “경제학부, 1923년 입학, 1927년 졸업, 외특생(外特生), 군산미곡취인소 회원, 칠성양주주식회사 근무”이다.⁷⁾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정노풍이 정수영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정수영의 행적을 추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愛의勝利』를 발견하였다. 『愛의勝利』는 1924년 조선혁신당출판부에서 발간된 것으로, 표지에는 “鄭哲作”이 병기되어 있고 판권에는 “著作者 鄭壽榮”이 기재되어 있어 정철과 정수영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중현의 글을 보면, 1927년 교토제대를 졸업한 경제학부 정수영⁸⁾이 정철과 동일 인물

6)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선징』, 휴머니스트, 2019, 345~381쪽 참조.

7) 정수영 이외에도 경제학부 출신의 유학생 중 성이 정씨인 인물은 정창과 정선규가 있는데, 정창은 청강생 신분이고, 정선규는 유학시기가 1927년에서 1930년이므로 정노풍의 이력과는 차이가 있다.

8) 1927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 수록된 「在日各團消息」의 「京都卒業冊名」에서 정수영은 황의동, 신영목, 이태규, 노동규, 민부동, 김시각과 함께 교토제대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을 예측할 수 있기에 정철(鄭哲) 역시 노풍(蘆風)처럼 정수영의 필명이며, 그의 본명은 정수영임을 알 수 있다.

박경수는 정노풍의 고향을 평양 및 평양 근교라고 추측하였는데, 그 근거로 고향의식이 반영된 작품에 평양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 등장하고, 평양에서 발간된 『백치』에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작품 말미에 “於西京”이라고 표기한 작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⁹⁾ 박경수의 이러한 추론은 합리적이나, 정수영이 군산미곡취인소 회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정종현의 연구에 따르면, 정수영은 “군산미곡취인소 회원, 칠성양주주식회사 근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교토제국대학 조선학생동창회 『회보』¹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정수영은 1927년 경제학부 졸업생으로, “現職或現職所”는 1936년 창간호에는 “群山米穀取引所會員”으로, 1939년 제5호에는 “七星釀酒株式會社”로, “本籍或現住所”는 1936년에는 “群山府全州通鄭壽榮商店”으로, 1939년에는 “平壤府仁興里四九五”로 기재되어 있다.

정수영의 행적에서 발견되는 장소는 군산¹¹⁾과 평양이다. 박경수는 노

9) 박경수, 앞의 책, 534쪽.

10) 『회보』에는 출신고등학교를 명기하는 항목이 있는데, 정수영의 경우 해당 항목이 공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교토제국대학에 입학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11) 정수영의 군산에서의 행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923년 『동아일보』에 수록된 글을 발견하였다. 1월 12일 『群山文友會發起』에는 “鄭壽榮外三氏の發起로 文友會를 組織코져 進行中인데 同會가 創立되면 機關雜誌를 發行하리라는 바 文化事業에 一助가 되리라더라(群山)”고 수록되어 있고, 9월 4일 『군산유학생강연회』에는 “연사 정수영군은 경제적 멸망의 학술적 고찰이란 연제의 후편으로부터 『조선인의 경제적 멸망과 其대책』이라는 제하”에 발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0월 6일 『東京震災學生慰安會』에서는 “『우리는 눈물에 잠긴 微笑로 반기자』는 개회사와(鄭壽榮)(群山)”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만 1923년 10월 16일 『조선일보』의 『高等學院 群山靑年이 組織』에서 “이제일본동경으로부터 졸업하고 도라온정수영(鄭壽榮)”이라는 내용이 있어 동경유학생인 정수영과 교토제대를 다닌 정수영은 다른 인물로 파악이 되기에, 1923년 『동아일보』에서 확인한 내용이 노풍과 동일 인물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군산유학생강연회』의

풍이 1930년 『중외일보』에 발표한 「문단의 회고전망」에서 “종교학교에 교편든 몸”이라는 내용을 통해 그가 평양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종교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한 것으로 예측하였다.¹²⁾ 이러한 박경수의 예측은 정수영이 1927년 10월 25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團結味」를 통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 정수영의 소속은 “崇傳敎授”로 기재되어,¹³⁾ 그가 교토제대를 졸업한 후 평양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한 것을 알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평양숭실전문학교에서 재직한 그는 ‘노풍필화사건’을 계기로 학교를 그만두고 군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2년 1월 13일 『조선일보』 신년 광고 중 군산미곡취인소 회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고,¹⁴⁾ 『회보』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도 동일하기에 1932년에서 1936년까지 그는 군산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 1936년 10월 9일 “『平壤七星燒酎』 지배인 정수영씨”라는 내용을 통해, 그는 1936년 군산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였으며, 『회보』를 통해 1939년까지 평양에서 기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는 1932년부터 군산미곡취인소 회원이었으며 1936년에 군산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여 평양칠성양주주식회사 지배인으로 재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41년 11월 『조선총독부관보』 제4433호에는 그가 朝鮮釀造原料株式會社의 取締役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1936년에서 1941년까지는 평양칠성양주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사망 시기는 한국교토대학동창회

내용이 그가 경제학부 전공자로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에 노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2) 박경수, 앞의 책, 533쪽.

13) 노풍과 함께 이른바 절충파의 입장을 취한 양주동은 1928년 와세다대학 졸업과 동시에 평양숭실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였기에 평양숭실전문학교는 이 두 사람의 사상적 교류가 이루어진 교차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4) 군산미곡취인소는 1932년 1월 1일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설립과 함께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32년 1월 15일 『조선일보』 「朝鮮內期米取引所 取引員一覽表」의 “群山取引所”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이 확인된다.

가 발간한 『회원명부』(1998년)를 통해 1968년 8월 12일로 확인된다.¹⁵⁾

노풍의 작품에는 평양, 개성,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 북녘의 지명이 다수 등장한다. 특히 이러한 지명은 개인의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초기 작품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쓰러져 가는 거리 數章』(『중외일보』, 1928.12.4.)에서 “내고향에 불지르고 白頭山님어로”와 같은 구문을 통해 그의 고향이 북녘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향은 일본유학생으로서 체감하게 되는 그리움의 터전이기도 하며, 험난한 삶의 고난으로 인해 떠나야만 하는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향상실의식은 정노풍의 개인사적인 비탄이나 과거지향성에서 유발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극성 즉 조국상실의식과 결부되는 것이기에¹⁶⁾ 개인적 체험은 민족의 현실로 환원된다.

검은김 배는 걷은흑우에
속누른 白菜란 참탐스럽소
입맛칠듯이 九月의 푸른하늘은
동실— 써도난 點雲을 엿보고잇소
아아 느즌十月 김장쌈은
짬지 신겨운지로 변하는 開城白菜
나는 日本만 가면 口味를일타십히
새금—한 冬김치가 생각나던걸.

- 「菜園」 전문(『학조』 1호, 1926.6, 95쪽)

「菜園」은 그의 첫 작품 발표지인 『학조』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일본 유학생인 화자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開城白菜”를 통해 구현된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은 타국에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데, 화자는 가을 김장 김치를 통해 고국에서의 삶을 회상한다. 이 작품이 발

15) 교토대학 졸업생과 관련된 정보는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다.

16) 김재홍, 「계급적 민족의식의 시, 鄭蘆風」, 앞의 책, 469~495쪽 참조.

표된 1926년에 그가 교토제대에서 수학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국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은 시인의 그리움으로 전이된다.

노풍의 작품 중에는 「哀唱」과 「築港의 한낮」, 「新春三章」 등 군산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있다. 이 가운데 「哀唱」은 그가 일본에서 유학 중일 때 발표한 작품이다.

깊허은 한밤 고요한 거리에
외로히 달빛은 새스바람에 흘늘제
눈물 겨운 한눈 은이슬에 빗나고
목매인 오인 새스닭에 우노니
님아 아는가 秋傷에 여윈 이몸을.

龜岩里 森林에 이는 새벽 안개
황토에 저즌채 흘느는 금강물
이몸은 어디로 흘너 가는가.

넓은 누리에 落葉의 한입 갓터
애상에 타는 벌너먹은 무궁화
멍들은 가슴에 퍼덕이는 서름을
희여드는 하늘의 새스별이 우누나.

- 「哀唱」 전문(『학조』 2호, 1927.6, 89쪽)

교토유학생들이 발간한 동인지의 특수성 때문인지 노풍이 『학조』에 발표한 작품에는 유독 국내의 지명이 다수 등장하며, “무궁화”, “단군”(「서림」) 등 민족적 특수성이 반영된 시어도 확인된다. 「哀唱」에서는 “구암리”와 “금강”을 통해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군산임을 예측할 수 있다. 「哀唱」의 화자는 가을밤 산책을 나서 구암리 삼림에서 흘러가는 금강물을 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되뇌어 본다. 황토에 젖어 흙탕물이 된 강물의 정처 없는 흐름은 애상에 타는 벌레 먹은 무궁화로 전이된다. 또렷한 방향성을 살필 수 없는 현재의 여건은 황토빛 강물로, 온전치 못

한 나라의 상황은 벌레 먹은 무궁화로 표상되고, 이는 설움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권을 빼앗긴 현실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데, 이러한 현실 인식과 감정의 노출은 당대 아나키즘 예술로서 민중문학이 전유한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¹⁷⁾

築港의 汽笛소리 썩썩썩 소래질르면
 썩그린 한울이 입을 썩죽인다
 八月달 白金太陽이 내려썩히는
 한낮의 길기도긴 海岸거리에
 빗속빗속 느러슨 穀倉穀倉의
 그 큰 아구리가 糞적 열렸네

稅關의 집머리에 旗빨날리면
 스피이 달려가는 적은배쓰고
 棧橋우에 싸히여 잇든穀食
 오늘날도 千石萬石 日本을가네

눅흔듯 돛머리엔 갈매기놀음
 船艙에는 싸올리는 穀石의피뽕
 썩무든 흰周衣에 낚은갓뽕친
 녀일흔 사람들은 港頭에서서
 텅빈속에서 이는시름 典當에너코
 그風景 그曲線에 입을벌리네

- 「築港의 한낮」 전문(『중외일보』, 1928.10.19.)

「築港의 한낮」은 민족적 계급주의를 표방한 그의 작품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8월 대량의 곡식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항구의 전경과 함께 이를 지켜보는 우리 민족의 시름이 전면화 되어 있다. 천석만석이 넘는 곡식

17) 정로풍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의 특성은 김경복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김경복, 「한국 아나키즘 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8.8)

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항구의 전경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던 군산항을 연상시킨다. 땀 흘리며 수확한 곡식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보내어지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때 묻은 흰 옷에 낡은 갓을 쓴 낡을 잃은 사람들의 시름은 무기력한 우리 민중의 모습이자 착취당하는 식민지의 현실을 보여준다.¹⁸⁾ 항구의 일군들에 대한 연민어린 그의 시선은 「新春三章」(『동아일보』, 1929.3.4.)에서도 “모든것에줄인사람들의쌍꺼머리는그소리가넘우나에닿어넘우나에닿어”로 드러난다. 정노풍은 농민이자 식민지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우리 민중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족적 차원에서 계급의식을 드러낸다.¹⁹⁾ 이는 국민문학과 프로문학을 포용한 민족문학의 특성으로, 반봉건 계급해방운동과 반외세 민족해방운동이 절충된 민족적 계급주의를 지향한 그의 인식이 발현된 것이다.

1920년대 쌀을 수탈당하는 우리 민족의 고통과 서러움을 작품으로 표현한 그는 머지않아 쌀 수탈에 관여한 군산미곡취인소의 회원이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노풍의 작품 활동 기간은 1926년에서 1935년까지이므로, 그가 군산에 머무는 동안에도 작품을 발표하였으나 1936년 평양으로 이동한 후 작품 발표를 중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의 주된 작품 활동 시기는 1926년에서 1930년 사이로, 이 이후 그가 발표한 작품은 시 「哀唱」(『신인문학』, 1935.1) 1편과 동아일보에 발표한 문학평론 2편²⁰⁾이

18) 김재홍은 노풍의 시는 “비관적인 현실인식 속에 리얼리즘적인 비판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실천적 운동성을 지니지 않고 상징화함으로써 문학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으로 보고, 박팔양의 글을 차용하여 그의 문학경향이 “절충적 계급협조주의”로 규정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김재홍, 앞의 책, 475쪽)

19) 조두섭은 정노풍을 계급문학과 민족문학의 절충이 아닌 국민문학과와 프로시를 함께 아우르며 식민지 민족 현실을 계급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한 대중화론의 실천자로 파악하였다.(조두섭, 「정노풍 : 계급적 민족시의 대중화 실천」, 앞의 책, 496~528쪽 참조)

20) 「數年內 展開된 朝鮮의 點點相-論壇·評壇에 보내는 感想二三」, 『동아일보』, 1934.12.27.~28.; 「最近文藝論評」, 『동아일보』, 1935.3.1.~5.

유일하다. 따라서 군산미곡취인소의 회원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1932년을 기점으로 그의 작품 활동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달리 확연히 작품 발표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풍의 생애를 보다 면밀하게 추적하였으나, 공백으로 존재하였던 그의 삶의 빈틈에서 문학인으로서의 행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1927년 교토제대를 졸업한 후 평양숭실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노풍필화사건’을 계기로 군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문단의 중심으로 편입되지 못하였다. 민족주의자와 계급주의자 모두를 향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였던 그는 1935년 스스로 마지막임을 예견하듯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한 잔의 술로 잊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哀唱』을 끝으로 문단에서 사라졌다. 계급적 민족주의자를 자칭하고, 식민지 현실 속에서 당면한 민족의 고통과 애환을 그려냈던 시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는 문단에서 사라진 그의 이름처럼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3. 『愛』와 『愛의 勝利』 발간

현재까지 확인된 정수영의 작품 활동은 교토학우회가 발간한 동인지 『학조』에서 출발한다. 그는 1926년 발간된 『학조』 창간호에 鄭哲로 산문 『女性解放運動의 史的考察』을, 蘆風으로 시 『短詩六章』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 발행된 『학조』 2호에는 목차에는 鄭哲로, 해당 페이지에는 蘆風으로 시 『哀唱』과 『煩熱』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 활동에서 『학조』 창간호에 발표한 『여성해방운동의 사적고찰』은 주제 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결을 달리하는데, 이번에 확인한 『愛의 勝利』가 이와 관련 있는 작품 활동에 해당하며 이 작품집으로 인해 그의 작품 활동은 1926년 이전으로 확장된다.

정수영은 『愛의 勝利』 발간 이전에도 문예평론잡지 『愛』를 주간한 바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는 당시 以文堂이 위치해있던 관훈동 130번지에 愛社를 설립하고, 『愛』의 주간 및 편집을 맡았는데, 주간에는 “鄭哲”로, 편집인에는 “鄭壽榮”으로 표기하였다. 『愛』는 1924년 1월 1일 발간되었으나, 그 내용이 당국에 기뢰되어 압수되었다.²¹⁾ 사전 검열 없이도 발간은 자유로이 이루어졌으나, 『愛』와 『廢墟以後』 등이 창간호부터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며 검열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²²⁾ 하지만 창간호 압수에도 불구하고 『愛』의 초판과 재판 2천부가 경성 시내에서만 거의 다 소비되었다고 하니²³⁾ 상당한 인기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愛』는 “文藝評論”을 내세우고 있으나, 창간호에는 평론뿐만 아니라 시, 산문시, 소곡(小曲), 단편(斷片)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톨스토이, 고리끼, 괴테 등이 언급한 사랑에 관한 문구도 삽입되어 있다. 창간호에는 정수영 이외에도 春月, 天外, 哲星 등 여러 인물의 작품이 함께 게재되어 있으며, 정수영은 정철로 「久遠의 生命을 憧憬하는 現代青年에게」와 「人生의 悲劇이나 喜劇이나?」를, 主幹으로 「眞理의 무덤」과 「本誌의 主張」을 발표하였다.

『愛』는 2호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하였는데²⁴⁾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인지 정수영은 출판법 관계로 2월 1일 종로서에 구금되었다 방면되기도 하였다.²⁵⁾ 구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창간호 표지에 수록된 「宣言」에는 “우리난 가삼에감추워잇난 참사랑의눈을 깨여서 爭鬭와 嫉妬에집흔 오날々朝鮮 오날々世界에 革命의 불꽃을 올니자는것이다”

21) 『『愛』창간호압수』, 『동아일보』, 1924.1.7.

22) 「出版法을 곳치라-문화보급을 막는 검열제도」, 『동아일보』, 1924.1.17.

23) 「愛의 勝利」, 『동아일보』, 1924.3.11.

24) 『愛』 창간호가 발간과 동시에 압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를 발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서 그의 강건한 면모가 드러난다. 이문당에서 공시한 광고에 “氏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쓸것업시 氏의 불갓튼 獅子吼를 들으면 알 것이런 니와”(『동아일보』, 1924.3.11.)를 통해 그의 성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25) 「鄭壽榮君釋放」, 『조선일보』, 1924.2.7.

등의 구문도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당국에서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정철씨 주간하에 집필되든 월간잡지 『愛』는 발간초 여러 가지 불행으로 나오지 못할 모양이다”²⁶⁾는 내용으로 보아 결국 『愛』의 후속 발간은 무산되었고, 연이어 『愛의 勝利』가 발간되며 이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愛의 勝利』는 정수영이 독자적으로 발간한 것으로, 1924년 3월 10일 조선혁신당출판부²⁷⁾에서 발행되었다. 『愛의 勝利』에는 시 「自由로운가슴을썩히지마르라」와 「보히지마르하」 2편, 소설 「사랑의 勝利」 1편, 산문 「사랑의宣言」, 「사랑의 샘의서(愛의泉에서)」, 「사랑의 힘」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시와 소설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웬自由로운女性아!
 웬自由로운男性아!
 사랑의불꽃이 타올거던
 한결갓치 살아라!
 그러나一秒도 躊躇하지마라!
 혈은形式에몰녀서 假面쓰지마르라!
 自由로운人生을 모욕하지마르라!
 自由로운가슴을 썩히지마르라!

26) 「愛의 勝利」, 『동아일보』, 1924.3.11.

27) 『조선일보』의 1923년 11월 24일자 지면의 「민성」을 통해 조선혁신당은 이 해에 수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혁신당은 총독부의 어용단체로 알려져 있다. 『愛의 勝利』에 기재된 “소개-조선혁신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同黨은 遠大한理想보담도 眼下의 現實을 尊重하야 一步라도 速히 朝鮮民族의 素質이 如實的으로 顯現하야 東洋民族運動에 貢獻잇도록 運動하는 黨이니 同黨의 表榜을 文句로 表現해노흐면 다음과 갓다 一, 朝鮮사람의 素算을 天然 그대로 發達식히자는 것 一, 朝鮮사람들이 다갓치 잘 살 수 잇도록 社會를 改良해가자는 것 一, 日本民族과 朝鮮民族이 永遠이 共『存』共榮하자는 것” 3가지의 내용 중 특히 마지막 항목은 ‘내선일체’와 동일한 맥락이다.

웬自由로운男性아!
웬自由로운女性아!
사랑의불꽃이 켜지거던
곳바로쓴어라!
그러나一秒도 躊躇하지마르라!
혈은形式에몰녀서 假面쓰지마르라!
自由로운人生을 모욕하지마르라!
自由로운가슴을 썩히지마르라!

웬自由로운女性아!
웬自由로운男性아!
모든組織과 모든秩序와 모든道德은
뛰난人生을爲한것이다!
삶을爲한것이다!
人類의共生을爲한것이다!
自由로운人生을 곳바로살니기爲한것이다!
그들의神聖한職務난 오직
「自由로운人生을自由로히살나난것」
그속에 絶對의意義를가진것이다.

웬自由로운男性아!
웬自由로운女性아!
혈은形式에몰녀서 假面쓰지마르라!
自由로운人生을 모욕하지마르라!
自由로운가슴을 썩히지마르라!

- 「自由로운가슴을썩히지마르라」 전문(『愛의 勝利』, 3~6쪽)

시 「自由로운가슴을썩히지마르라」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조직과 질서와 도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이 연애하고 자유로이 헤어질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며, 「보히지마르하」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일생의 모든 행복을 사랑에 바쳤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두 편의 시는 남녀의 동등한 위치를 강조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모든 가치 중에서 사

량이 가장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사랑의 勝利』는 책의 제목과 동일하며, 『愛의 勝利』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한다. 『사랑의 勝利』는 당대의 일반적인 남녀에 대한 인식을 전복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이 작품은 남녀주인공의 사랑을 당시 유행하였던 서간문의 형식²⁸⁾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취한다. “敬愛”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지닌 여자주인공은 일본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였으나 남자주인공인 수종과의 사랑을 위해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여학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다. 수종은 문학을 전공하였으나 가난한 삶으로 인해 우유배달부로 일하며 자신을 위해 미국 유학을 포기하는 경애를 위해 그녀와의 헤어짐을 선택하고자 하나 경애의 설득으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아! 敬愛氏

나의사랑하는敬愛氏!

당신은 만은犧性을가주고나를 사랑하셧지요 모든因習과날근道德과慣習을 超越하야나를사랑하셧지요 뛰난가슴의피를가치고나를사랑하셧지요 그러나나의게는犧性해들일아모것도업스외다 因習, 慣習, 道德, 도나의게는拘束할것이업스외다 오직나의몸!뛰는情熱이恒常불부터잇는나의몸-참人生의使徒되자는굿생意志를가진나의몸!이것뿐니외다 나의所有라고는 이것뿐니외다 나의財産니라구는이것뿐이외다 나는이것을 犧性하겠습니다 나의사랑을爲하야 힘업는肉體나마흠신犧性하겠는이다!

- 『사랑의 勝利』 부분(『愛의 勝利』, 57쪽)

『사랑의 勝利』는 사랑보다 경제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반영된 작품이다. 지식인 남성과 순애보 여성의 구도를 탈피하여 능력 있는 유학생인 여성 지식인과 사랑에 몰두하는 가

28) 1920년대 연애에 있어 서간문이 갖는 특수성에 관해서는 『연애의 시대』에 수록된 「연애편지의 세계상」이 참고가 된다.(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24~145쪽 참조)

난한 남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으며,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두 사람이 단념하지 않고 사랑을 방해하는 낯은 인습과 도덕과 관습을 초월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숭고함을 전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완전하고, 공평하며, 평등하며, 신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남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수영의 인식은 기쿠치(菊地愛二)가 창간사에서 밝혔듯 조선혁신당이 표방한 “가정의 개선, 부인소아의 인격존중, 공창폐지, 여자현매금지” 등의 여성의 인권 신장 운동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권위에 대한 배척, 자유와 평등을 위한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당대 아나키스트들이 전유했던 사상의 일면과 상통한다.

4. 3편의 미공개 작품

정수영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은 작품 3편을 확인하였다. 이 3편은 모두 1928년 『중외일보』에 수록된 것으로, 창작민요 『네그리마라』 1편과 시 『가신님』, 『친구야』 2편이다.

『네그리마라』는 2연 18행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서라 마러라 네그리마라
 擲擲會만 여러도 싸홈판니야
 웃가락을 던젓결낭 웃짜을보아
 모와웃은 못낫결낭 걸인가보아
 하다못해 토나개가 낫더라시면
 말판이나 익겼다가 말을써야지
 팔방을 돌드래도 가야할길을
 웃가락 손에쥔채 이력쿵저력쿵

날새는줄 모르느냐 이사람들아

아서라 마러라 네그리마라
 擲柶會만 여러도 싸흠판이나
 무슨복이 그리만하 이한밤중에
 쿵덕궁 쿵덕궁 방아질이야
 看板만 부쳐노면 술란말인가
 싸흠만 하고보면 일이란말가
 텅빈속에 구하는건 만키도하니
 곱플사록 정신차려 이사람들아
 압흘사록 살펴보아 이사람들아

- 「네그리마라」 전문(『중외일보』, 1928.9.24)

「네그리마라」는 윗놀이를 하는 상황에 빗대어 서로 대치하고 싸움을 일삼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투영된 작품이다. 화자는 “간판만 부쳐노면 술란말인가”라는 구문을 통해 각종 단체들이 속출하고, 그들 사이에서 실속 없이 발생하는 이권싸움에 문제를 제기한다. 작품의 발표 시기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장면은 당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과 그 사이에서 표출된 이념분쟁을 환기시킨다. 계급적 민족주의라는 절충주의 노선을 선택한 노풍에게 있어 1926년 조선 사회단체 중앙 협의회 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양당논쟁의 무의미한 분파투쟁과, 정우회를 거쳐 신간회가 발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한 내부의 분열 문제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치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팔방을 돌드래도 가야할길”에 내재한 당위성은 우리 민족의 국권 회복에서 찾을 수 있기에 민족의 단결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모적인 싸움판을 멈추고 협의를 통해 내실을 다져야함을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대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는 형식은 노풍의 시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愛의 勝利』에 수록된 「自由로운가슴을썩히지마르라」 역시 이에 포섭되

는 작품이다.

님가실재 예리든 무궁화꽃이 발갓케 피엿건만
가신님은 아아고대하는가신님은 오실줄을몰느네

손꼽아헤아리니 애닦은리별지은지 하마스물해라
짓는눈물엔들 님의얼굴은얼이어 하마올가하마오실가!

湖²⁹⁾水에 소래업시셔러지는 피눈물은푸른물길을 흘이건만
가신님은 아아고대하는가신님은 오실줄을몰느네

님다시오실것을 밋고또밋고 미듬에야흙인들 잇스라만은
붉은피시들도록 骨髓에맺친님을언지나쌍우에서 뵈오리!

쓰거운한낮에 구슬판 이마에 설이는동모들 아아 우리 동모들
그쓰거운가슴깎피서 길러나는 오실님의 그림자야 산들거리건만

아아가신님은 고대하는가신님은 오실줄을 몰느고 北村의허젓한거리에
무궁화꽃보라 바람에날니네

- 「가신님」 전문(『중외일보』, 1928.9.25)

「가신님」은 이별 상황에서 떠나간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노풍은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의 심정을 꽃에 투영하여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역시 그와 동일한 방식이다. 앞서 「哀唱」에서 등장한 벌레 먹은 무궁화는 「가신님」에서는 흩날리는 대상으로 변화한다. 20년이 지나도록 부재한 임의 존재로 인한 상실감은 줄기에서 떨어져나가 이제는 스러지는 일만 남은, 눈보라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무궁화꽃보라를 통해 전경화 된다. 식민지 시기 발표된 문학작품에서 임과 해방을

29) 지면의 글자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湖”인지 “洪”인지 불분명하나, 홍수보다는 호수가 작품의 내용 전개에 더 자연스러워 “湖水”로 표기하였다.

등가로 치환시키는 것이 작품 해석의 범주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과, 설사 이념적 지향을 표명하였다고 할지라도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그의 문학적 이념에 소급시키는 것이 유발할 도식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과 이별한 지 20년이 지났다는 진술과 여전히 부재한 임의 존재, 그리고 노풍이 견지해나간 문학의 방향성은 이러한 의미의 굴레를 쉽게 벗어던질 수 없도록 만든다.

친구야

이결래에 이리도살수엄든새가 쏘앗섯든가
그리고또 이리도사랑하든새가 쏘앗섯든가
텅빈손과손을 움켜쥐고
동모들은 썰며 눈물짓네
눈물짓다못해 엉엉 울음우네
주린창자들을 들여다보고는 울다못해 몸부림치네
아아 시름찬 가슴과가슴을 맞대히고-

친구야

어제스날엔 술잔에 지는눈물이엇건만
계집가슴에 흘린 속엍는 눈물이엇건만
계집가슴에 흘린 속엍는 눈물이엇건만
모진사리에 쓸어올르는 애닦음을 안고도
달그림자에 애소하는 외론 울음이엇건만
텅빈 손과손을 움켜쥐고
동모³⁰⁾들은 썰며 눈물짓네 늦겨우네 몸부림치네
아아시름찬 가슴과 가슴을 맞대히고-
친구야
그가슴에 숨겼든 크나큰 사랑의불꽃이
이제야 터졌네 이제야 터져올르네
늦겨쫓는 저눈물줄기가
썩썩러진거리를 술취한집집을 휩쓰네 휩쓰러말키네

30) “동모”의 오자로 보인다.

새날을여는 첫닭의울음가티 동모들의 저애통성이
쌌만부튼 오막사리에 불을질르네 화스불을질르네
아아 이리도살수업는 재앙의하늘미테서

- 「친구야」 전문(『중외일보』, 1928.9.26)

노풍은 「친구야」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1928.7.22.)와 『중외일보』(1928.8.26.)에 작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3번째 「친구야」에 해당한다.³¹⁾ 이 작품들은 동일한 제목이나, 그 내용은 변별된다. 이 작품에서 친구는 화자와 고통을 공유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당면한 현실은 재앙의 하늘 밑으로, 이 겨레에 다시없을 가장 험난한 시기이다. 텅 빈 손을 마주잡고 떨며 웃음 짓고, 웃음 짓다 못해 엉엉 울음을 울고, 울음은 주린 창자로 인해 몸부림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친구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사랑의 불꽃을 터트려 햇불을 피워 올리는 존재들이다. 모진 현실로 인한 애달픔과 애통함이 서로를 겨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름 찬 가슴을 맞닿게 한다는 화자의 진술은 비극적 현실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우리 민중의 화합의 불씨를 드러낸다. 노풍은 재앙과 같은 이 겨레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그 힘듦을 서로 위로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동포애를 친구의 존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노풍의 생애 및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작품 활동에 주목하였다. 노풍의 본명이 기존에 알려진 정철이 아닌 정수영임을 밝히고, 이 사실을 기반으로 그간 빈틈으로 존재했던 그의 삶의 단면과 지금

31) 인용한 『중외일보』 1928년 9월 26일자 수록작에는 “詩集 『친구야』에서”라는 출처가 부기되어 있다. 현재까지 노풍이 발간한 시집은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 활동을 살펴보았다.

1920년대 일본유학생은 대표적인 지식인의 표상이었다. 그들에 의해 한국근대문학이 태동했으며, 풍성해졌다. 새로움을 향한 끊임없는 시도는 수많은 문학 작품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다양성의 발로는 경향을 만들었으며, 경향은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풍이자, 정철은 그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식민지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인 노풍이 사라지자, 일제의 자본이 집중되었던 기업에서 근무하는 정수영의 등장했다. 서로 다른 이름처럼 그의 삶은 그 이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었지만, 그러한 면모 역시 근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공론』, 『조선일보』, 『중외일보』, 『청년』, 『회보』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 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8.8

김재홍, 『계급적 민족의식의 시, 鄭蘆風』, 『한국문학』 통권185호, 1989.3.

박경수, 『정노풍의 계급적 민족의식의 문학론』, 『한국문학논총』 제11집, 한국문학회, 1990.10, 261~281쪽.

_____, 『정노풍 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정철 主幹, 『愛』, 愛社, 1924.

정철, 『愛의 勝利』, 조선혁명당출판부, 1924.

조두섭, 『정노풍시 연구』, 『대구어문논총』 제8집, 1990.5, 437~469쪽.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works of Jeong,
no-pung

Kim, Dong-Hee*

This article examines the life and works of Jeong no-pung(鄭蘆風), which have not been well known. Jeong no-pung is a poet and literary critic who was active in the 1920s and 30s. In previous studies, Jeong no-pung's name has been known as Jeong cheol(鄭哲), but this article proposes and proves that his original name is Jeong soo-young(鄭壽榮). Based on his newly identified name, this article introduces his additionally confirmed works such as the publication of 『Love(愛)』 and 『Victory of Love(愛의 勝利)』, and three poems included in the 『Jung-Oe Ilbo(中外日報)』. Jeong Soo-young, who had worked under the name of Jeong no-pung and Jeong cheol, was an intellectual who studied at Kyoto Imperial University in the 1920s. However, he eventually failed to join the mainstream literacy circle and ended his life after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core business of Imperial Japan.

Key Words: Jeong no-pung(鄭蘆風), Jeong cheol(鄭哲),
Jeong Soo-Young(鄭壽榮), Kyoto Imperial University,
Love(愛), Victory of Love(愛의 勝利)

* Korea University.

정노풍의 삶과 작품 활동에 관한 小考 111

■ 논문접수 : 2020년 11월 20일

■ 심사완료 : 2020년 12월 12일

■ 게재확정 : 2020년 12월 14일

